

신경에 나타난 속성 교통론을 중심으로 바라본 기독교 연구

목 차

I. 들어가면서	1
II. 신경이 가지는 의미	1
1. 신경의 기원과 그 성격	1
2. 신경의 권위	3
III. 신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육신의 주체	3
1.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육신의 주체	4
2.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령의 위치와 사역	6
3.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주체로서의 마리아	7
IV.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과 그리스도의 비하	10
1. 속성교통과 성육신에 나타난 기독교	10
2. 속성교통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12
3. 속성교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	13
1)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에 드러난 고난의 의미	14
2)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을 통해 이루어낸 십자가의 무름	14
4. 위격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지옥강하 그리고 부활	16
V. 위격적 연합을 통해 이룬 그리스도의 승귀	17
1. 위격적 연합을 통한 승귀의 사실과 그에 따른 의미	17
2.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18
VI. 결론	19
VII. 참고 문헌	20

신경에 나타난 속성 교통론을 중심으로 바라본 기독교 연구

I. 들어가면서

신경은 개인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다. 최초의 신경에 대한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따라서 신경과 성경은 별개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의 권위는 신앙의 고백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 권위는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들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신경들을 통해 신경이 말하고 있는 위격적 연합이라는 속성교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인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신경들은 어떤 고백들을 담고 있는지 Philip Schaff의 ‘*The Creeds of Christendom*’ I, II, III 권을 중심으로 그 사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신경이 가지는 의미

1. 신경의 기원과 그 성격

신경은 성경의 규범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신경도 성경의 규범을 벗어나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¹⁾ 이런 신경은 기독교 교리의 역사에 대한 모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신경은 신앙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교적 논쟁과 함께 하였으며, 그 논쟁을 통해 드러난 가장 가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신경을 한 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살아 있는 동력’이라 말할 수 있다.²⁾ 살아 움직이는 동력인 신경은 그 기원이 다른 것

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history of Creeds, A History of Creeds of Christendom, Origin of Creeds, (USA : Baker Books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mpany, 1996), 6.

2) Philip Schaff는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A History of Creeds of Christendom의 ‘Origin of Creeds.’ 5 page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경이라 말할 수 있는 교리

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³⁾ 그리고 이런 신경은 결국, 그 내용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고백을 담고 있으며, 결국은 기독교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Philip Schaff는 밝히고 있다.

이런 신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경은 그 발원이 어느 한 특정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의 경우,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에 의해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것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이라 말할 수 있다.⁴⁾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니케아 신경⁵⁾과 칼케돈 신경⁶⁾ 그리고 도르트⁷⁾의 조항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⁸⁾ 등에 이르는 신경들 또한 특정한 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신앙의 고백들 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⁹⁾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경우도 사도신경처럼 그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¹⁰⁾ 이와 같이 신경들의 기원은 보편적 신앙으로부터 그 기원이 이루어졌으며, 신경이 가지고 있는 성격 또한 이러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신경의 권위

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세례문답과 주의 만찬에 대한 제도의 말씀들이 바로 신경에 관한 것을 담고 있으며, 교회는 보편적 신앙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을 신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신자로서의 삶의 규범을 함께 담고 있으니 이런 신경을 가리켜 ‘살아있는 동력’으로 본 논고에서는 표현을 한 것이다.

- 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Origin of Creeds, 6; The Apostles' Creed, 16.
- 4)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postles' Creed, 14.
- 5)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파를 향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postles' Creed, 16.
- 6) 칼케돈 신경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따르고 있다. 제1차 니케아 회의는 그리스도의 영원, 선재교리를 체계화시켰다면, 제4차 칼케돈 회의는 지상에서 임재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성육신하신 *λογός*에 관한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9. The Creed of Chalcedon, 30.
- 7) 도르트 신경이 칼빈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치신조가 루터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다.
- 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학적인 역량과 풍성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신경들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일랜드 장로교회의 신경과 매우 흡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똑같이 신앙의 규범으로 높이는 로마교회의 사상이나 자연인의 이성의 충족성 등을 가리치는 합리주의와 맞서서 맨 먼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바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03-605.
- 9)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Origin of Creeds, 6.
- 1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thanasian Creed, 35.

신경의 권위에 대해 교회는 이차적 규범이 되고, 성경이 원규범이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케논’ 즉 잣대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경들의 절대적 권위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 그 권위가 발생되어야 한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 Pius V의 신경¹²⁾과 1870년 바티칸 공의회와 바티칸의 교령들을¹³⁾ 통해, 베드로 안에서의 사도적 수위권이 교황에게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불명확한 신경들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 논쟁은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로마교회는 신경에 ‘보편적’ 또는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로마교회의 신경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하나를 이루게 하였으며, 그것을 신경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¹⁵⁾ 이런 신경은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교파간의 교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III. 신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육신의 주체

1.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육신의 주체

1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Modern Protestant Creeds, 819.

12) Roman Catechism은 트란트 총회에 의해 제안되어졌으며, 1565년 Poggianus에 의해 교정되어졌으며, 다시 성직자들과 Latinists에 의해 교정되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566년 7월 완성되어지며, 교황 Pius V에 의해 이것이 인정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의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된다. 이런 Roman Catechism은 크게 4분류로 그 구성을 이루게 된다(1. 사도신경 2. 성례 3. 십계명 4. 주기도문). 그러나 예수회는 이것이 Augustine과 Thomas Aquinas의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발하게 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Roman Catechism(1566), 100-101.

13) Vatican Council의 중요한 점은 교황의 절대 우위성을 말하는 ‘절대지상주의’와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Vatican Council은 교황을 가리켜 “I am the tradition, but also, I am the Church”이라고 칭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Vatican Council(1870), 146.

14)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Authority of Creeds, 8.

15) 예를 들어 ‘지옥강하’는 아퀼레이아 신경으로부터 왔으며, 보편을 말하는 ‘카톨릭’은 동방교회의 신경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갈리칸으로부터 왔으며, ‘영생’은 라베나 교회신경과 안디옥 신경의 조항들이 삽입된 것이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postles' Creed, 19.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 대해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두 가지로 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이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만들어진 나심이 아니라 ‘동일본질’에 의한 나심임을 말하고 있다.¹⁶⁾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른 것에 의한 나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The Longer Catechism of the Eastern Church’의 문답 142번을 통해 “왜 그가 영원한 나심이라고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간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의 나심은 일찍이 성부로부터 ‘영원한 나심’임을 말하고 있다.¹⁷⁾ 뿐만 아니라 ‘Luther's Small Catechism(A.D.1529)’ 또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그 존재의 주체를 아버지로부터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임을 설명하고 있다.¹⁸⁾ 그리고 ‘Confessio Fidei Gallicana(A.D.1559)’은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나심’이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Confessio Belgica(1561)’ 또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같이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심’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함께 말하고 있다.²⁰⁾

이런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Heidelberg Catechism(A.D.1563)’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육법에 의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

16) “The terms ‘coessential’ or ‘coequal’(ὁμοούσιος τῷ πατρὶ), ‘begotten before all worlds’, ‘very God of very God’(θεὸς ἀληθινὸς ἐκ θεοῦ ἀληθινοῦ), ‘begotten, not made’”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Nicene Creed, 24.

17) 142. “Why is it said that he is begotten *before all worlds*? That none should think there was ever a time when he was not. In other words, by this is expressed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from everlasting, even as God the Father is from everlasting.”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Longer Catechism of The Eastern Church, 467.

18)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Luther's Small Catechism(1529), 79.

19) ‘The Son begotten from eternity by the Father. The Holy Spirit proceeding eternally from them both; the three persons not confused, but distinct, and yet not separate, but of the same essence, equal in eternity and power.’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Confessio Fidei Gallicana, 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1559), 363.

- Gallican은 칼빈의 교리에 대한 충실한 요약 판이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Gallican Confession(1559), 495.

2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Confession Belgica, The Belgic Confession, 393.
- Belgic Confession은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순서는 ‘Gallican Confession’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lgic Confession은 ‘Gallican Confession’보다 덜 논쟁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외하고 칼빈주의적 교리체계를 가장 잘 진술한 고백서이다.

로 잉태되어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²¹⁾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영원한 나심’으로부터의 성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하나님이 주체임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그 주체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나심이 아니라 사람인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에 의한 성육신의 나심이 아니라 인성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런 네스토리우스에 대해 ‘The Second tic Confessio’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어버리며, 그리스도의 신앙양성 위격적 연합을 무너뜨려버리는 네스토리우스를 혐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²⁾ 뿐만 아니라 에베소 공의회(A.D.431)는 네스토리우스의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교리에 대해 정죄하고, 알렉산드리아 Cyril의 ‘12저주’를 받아들여지게 된다.²³⁾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니케아-콘스탄티노플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칼케톤 신경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나심인 성육신은 양성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실체적이고, 영속적으로 연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⁴⁾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부와 성자의 종속을²⁵⁾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령으로의 잉태 또한 종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네오가이사라의 그레고리는 이것을 관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2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 314.

22)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Second tic Confessio, 851.

2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Eastern Sects, 80; Volume II, The Creed of The Sixth Ecumenical Council, 73.

24) 그리스도는 두 인격이 아니다. 섞여졌거나 제3의 존재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의 양성임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Creed of Chalcedon, 30-31.

25) The Athanasian Creed는 제4차 에큐메니칼 회의(325-451) 때까지의 교리적인 결정과 삼위일체와 성육신에 대한 Augustinian의 사상을 요약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thanasian Creed, 37.

-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 아니라 세 위이시다. 삼위는 동일본질을 가졌으며, 똑같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삼위는 품위와 순서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지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Second tic Confession, 835.

26) Gregorius Thaumaturgus of Neo-Caesarea(A.D.270)는 성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가 종속적인 것에 놓여 있지 않고, 동등한 관계적인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Gregorius Thaumaturgus of Neo-Caesarea, 24-25.

- Arius가 이단이 된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라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We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Almighty; And in the Lord Jesus Christ, his Son, who was begotten

그 주체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레네우스는 성육신의 주체를 스스로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킨 성자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²⁷⁾

2.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령의 위치와 사역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회의의 결정에 따라 니케아 신경을 낳았으며, 서방교회는 Roman form인 사도신경을 낳게 된다. 특히 381년에 개최된 콘스탄티노플회의는 성령부분을 보충하여 성령의 신격을 거부하는 ‘영 기계론자들’의 입장을 방어한다.²⁸⁾ 그리고 성령에 관해 니케아 신경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이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출래된다는 ‘Filioque’를 말하게 된다.²⁹⁾ 그러나 여기에 대해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과 또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³⁰⁾ 그러나 ‘Filioque’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동서방교회의 신경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잉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³¹⁾

of him before all ages, the Divine Logos, through whom all things were made, both those in the heavens and those on the earth.”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Private Creed of Arius(A.D.328), 28.

- 살라미스의 에피파우스는 *ἐκ*를(여기서 *ἐκ*는 *ὁμοούσιος*와 같은 것으로 사용된다.) 사용하여 아버지로부터 나온 종속설을 말하지 않고 있다. “*τουτέστιν ἐκ τῆς οὐσίας(본질) τοῦ Πατρὸς,(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온) φῶς ἐκ φωτός, Θεὸν ἀληθινὸν ἐκ Θεοῦ ἀληθινοῦ, γεννηθέντα, οὐ ποιηθέντα, ὁμοούσιον τῷ Πατρὶ*”(나셨으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ἐκ*가 아니라 *δια*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가현설이 되는 것이다(*καὶ σαρκωθέντα ἐκ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Μαρίας τῆς Παρθένου, καὶ ἐνανθρωπήσαντα*).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작용으로 잉태한 것을 나타낼 때는 성령 앞에 *ἐκ*가 아니라 *δια*를 사용한다(*ex, διὰ πνεύματος*에서 *διὰ*는 효과를 나타낸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wo Creeds of Epiphanius(A.D.374), 33-34, 36.

- Symbolum Ecumenica의 I. Symbolum Apostolicum(a)에서 마리아 앞에 *δια*를 사용하지 않고 *ἐκ*를 사용하고 있으며, (b)The Old Roman and African form of The Apostles' Creed에서도 마리아 앞에 *δια*를 사용하지 않고 *ἐκ*를 사용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Symbolum Ecumenica, 45-53.

27) "Who, for his astounding love towards his creatures, sustained the birth of the Virgin, himself uniting his manhood to God,"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Irenaus, Second Form, 15.

28)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저주문을 삭제하고, 성령의 조항을 추가한다. 특히 니케아 신경은 589년 스페인 톨레도회의에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그 내용을 삽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The Greek Church은 신경에 대해 라틴과 서방교회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Nicene Creed, 25-26.

29) Athanasian Creed은 ‘Filioque’를 통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출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Athanasian Creed, 68.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Filioque’를 통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발출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08.

30) The Greek Church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니케아신경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Filioque’를 뺀 니케아신경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The Greek Church은 ‘Filioque’에 대해서는 라틴과 서방교회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Nicene Creed, 26-27.

31) The Apostles' Creed; Received Text. 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The Nicene Creed, as Enlarged A.D. 381, 3.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흠 없는 나심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람의 생태법에 의한 나심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를 통해 나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관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은 죄인인 사람의 뜻과 주관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정에 따라 선함과 정직함으로부터 떨어져나갔으며,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³²⁾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람의 어떤 선행과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

3.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주체로서의 마리아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마리아의 수태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무흠한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잉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이다. 전자의 견해는 마리아의 신성을 말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되심을 말하고 있다며, 후자의 견해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신적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신적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마리아의 신성성을 말하고 있다면, 후자는 마리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Trent의 공의회와 Vatican은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로마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내세워 이러한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Pius V(1570)는 마리아의 원죄에 대한 것을 가르치거나 토론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된다.³³⁾ 뿐만 아니라 로마교회는 1854년, 원죄없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Nicene Creed, 28.

32) ‘제8장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죄의 원인’(Second tic은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와 일치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죄책의 전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길을 걷고 있다.) *Christendom*, Volume III, The Second tic Confession, 842-843.

3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rgument for The Immaculate Conception, 124.

는 잉태를 법령을 제정하게 된다.³⁴⁾ 심지어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The First Part of The Orthodox Catechism’은 186문과 187문을 통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도, 그 후에도 처녀로 남아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자궁 잉태를 거부하기도 한다.³⁵⁾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체가 마리아가 되어버리고 있다. 마리아가 흠 없는 여인이 되었기에 그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맞서 세워진 트렌트 회의는 1564년의 공의회³⁶⁾를 통해 자신들은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전통을 권위로 여기며, 교회가 성경의 해석권을 가진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³⁷⁾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마리아의 무흠설에 합당한 마리아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마리아가 없이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피우스 9세의 교령은 마리아의 무흠 잉태를 마리아의 신성에 따른 잉태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³⁸⁾ 그러나 그 이전에 열렸던 1546년의 트렌트 회의는 마리아의 무흠에 대해 중립의 입장에 서게 된다.³⁹⁾ 그러나 로마교회는 마리아의 무흠을 통해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가 났음을 말하게 되며, 마리아가 없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할 수 없도록 마리아의 공로를 말하게 된다.⁴⁰⁾ 결국 마리아의 무흠 잉태는 기독교를 마리아리즘으로 바꾸어버

34)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Authority of Creeds, 8.

35) 186. Did the Most Holy Mary remain, in fact, ever a virgin? She remained and remains a virgin before the birth, during the birth, and after the birth of the Saviour; and therefore is called ever-virgin.; 187. What other great title is there with which the Orthodox Church honors the Most Holy Virgin Mary? That of Mother of God.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First Part of The Orthodox Catechism, 471-472.

36) 트렌트 회의는 1543-1563(4)년까지 18번의 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 중 로마교회의 교리와 법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최상의 표준이 되는 것은 1564년 Pius IV의 명령에 의해 로마에서 처음 출판된 트렌트 회의의 Canons와 Decrees이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Profession of Tridentine Faith(1564), 98.

-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맞서 로마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트렌트 공의회는 처음에는 교황들이 자신들의 절대권위를 위협받는다는 이유 앞에 이 회의의 소집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그들 또한 계속되는 여론에 의해 이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37)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Professio Fidei Tridentine, 207.

38)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Decretum PII IX. De Immaculata Conceptione Beata Virginis Maria, 211-212.

- 교황 Pius IX는 마리아를 등장시켜 마리아는 모든 죄(원죄를 포함함 죄)로부터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Papal Definition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The Virgin Mary(1854), 109.

39) 여기에 대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적용이 되지 않음을 말하게 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rgument for Immaculate Conception 124.

40) Secondly, the dogma, by exempting Mary from original sin in consequence of the merits of Christ, virtually puts her under the power of sin; for the merits of Christ are only for sinners, and have no bearing upon sinless beings.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rgument

리게 된다. 한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대체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었다.⁴¹⁾ 그러나 마리아의 무흠에 대한 교리는 로마교회가 직접 고백하고 받아들인 ‘The Canon of Vincentius Lirinensis’와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The Argument for Immaculate Conception’은 ‘The Canon of Vincentius Lirinensis’는 마리아의 죄 없음에 대한 교리를 반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교부들 또한 마리아의 무흠에 대한 교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로마교회의 마리아 숭배사상과 마리아론은 그 기원을 에비온파와 영지주의에 두고 있는 것을 ‘위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⁴³⁾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한 획을 그어야 할 것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말씀의 기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있으며, 두 번째는 이런 바탕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선포에 있다.⁴⁴⁾ 그러나 이런 기록된 말씀에 그 근원을 두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로마교회는 마리아론에 대한 그 내용이 세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이며, 두 번째가 ‘자범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세 번째가 ‘원죄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것이다.⁴⁵⁾ 이렇게 만들어진 성모 마리아 숭배사상은 미술로도 발전되어지며, 마리아의 위치가 ‘성자’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 대해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이 땅에는

for Immaculate Conception 127.

- Philip Schaff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로마니즘에 대한 통렬한 비판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로마 주의는 마리아 숭배로부터 서고, 넘어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서고, 넘어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를 예배함에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Papal Definition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The Virgin Mary(1854), 112.
- 로마교회는 1950년 동정녀 마리아 승천 교리라는 ‘The dogma of the assumption of the Virgin Mary’를 결정함으로 마리아 숭배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 41) The dogma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which exempts the Virgin Mary from sin and guilt, perverts Christianity into Marianism; the dogma of Infallibility, which exempts the Bishop of Rome from error, resolves Catholicism into Papalism, or the Church into the Pope. The worship of a woman is virtually substituted for the worship of Christ, and a man-god in Rome for the God-Man in heaven. ... The dogma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being confined to the sphere of devotion, passed into the modern Roman creed without serious difficulty.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34. Papal Infallibility Explained, and Tested by Tradition and Scripture, 164.
- 42) “마리아의 죄 없음에 대한 교리는 매우 uncatholic적이다. 그것은 ‘The Canon of Vincentius Lirinensis’이 말하는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의 3가지 본질(단순성, 유일성, 보편성)과 상충됩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29. The Argument for Immaculate Conception, 116.
- 4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29. The Argument for Immaculate Conception, 117.
- 44)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79-80.
- 45)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29. The Argument for Immaculate Conception, 118.

의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 1절의 ‘죄 없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 ‘죄의 전가’로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이라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으로 마리아는 성육신을 이끌어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ynod of Jerusalem and The Confession Dositheus’은 Article VI 에서 마리아의 원죄를 부정하게 된다.⁴⁶⁾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마리아는 성육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 로마교회 스스로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다. “우리들은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의 새로운 로마 교리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죄가 없다고 하는 처음 13세기의 전통을 벗어난 것입니다.”⁴⁷⁾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잉태한 그리스도만이 무흠하며,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육신의 출산에 따른 주체가 될 수가 없다.

IV.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과 그리스도의 비하

1. 속성교통과 성육신에 나타난 기독교론

신인양성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진 가운데 위격을 통해 교통한다. 속성교통은 한 인격 안에 두 양성인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으로서 ‘한 인격’이다. 그럼으로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성에 속한 고유한 속성과 사역과 은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⁴⁸⁾ 여기에 대해 ‘**περιχώρησις**’는 속성교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신비한 일⁴⁹⁾로 소개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위격적 연합을 이룬 성육신에 대하여 이것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아다나시

46) Article VI.—‘The primitive state and fall of man. Christ—and the Virgin Mary are exempt from si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Synod of Jerusalem and The Confession Dositheus, 63.

47)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Old Catholic Agreement(1874), Art.X, 549.

48) 문병호,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성경교리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135.

49) 개혁주의 속성 교통론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두 본성은 제3의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섞여진 존재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 신비한 일인 **περιχώρησις**이다(동사 **περιχώρησις**는 니사의 그레고리에 의해 제일 처음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Creed of Chalcedon, 31-34.

우스 신경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이것을 동물적 영을 가진 육체에 국한시킨 채 그 안에 신적 로고스가 있다고 말하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의 입장을 반대한다. 그러나 칼케톤 신경은 신성의 이런 위대한 신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케톤은 위격적 연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에는 양성의 ‘네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의 원리가 양성은 ‘혼합이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양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양성은 ‘분할이 없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양성은 ‘분리가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들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양성에 있는 본성이 제거되지 않으며, 각성의 특성이 한 인격인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¹⁾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두 나심’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영원한 나심’으로서의 성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나심’으로서의 성육신인 것이다. 성육신과 속성교통은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위격적 연합의 교리에 대해 ‘The Gallican Confession’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부인하고 있는 세르베투스와의 같은 이단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으며, 위격적 연합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아니하고, 두 본성이 명백히 존재한 채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위격적 연합은 신성이 그 속성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인성은 인간의 속성이 가지는 그 한계를 계속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⁵²⁾ 여기에 대해 ‘The Belgic Confession (1561)’은 그리스도가 취하고 있는 위격적 연합에 대해, 위격적 연합은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두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신성과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한 인격이 취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두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격적 연합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을 이룬 것이 아니며, 신성과 인성이 그 고유한 속성

5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Creed of Chalcedon, 34.

51) ‘inconfuse’, ‘immutabiliter’, ‘indivise’, ‘inseparabiliter’

- nusquam sublata differentia naturarum propter unionem, magisque salva proprietate utriusque naturæ, et in unam personam atque subsistentiam concurrente: non in duos personas partitum aut divisum, sed unum eundemque Filium et unigenitum, Deum verbum, Dominum Jesum Christum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Symbolum Chalcedonense, 63.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양 본성이 위격적 연합을 이룬 가운데 화해의 사역을 이룸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22.

52) We detest all ancient and modern heresies on the person of Christ, especially that of Servetus. The two natures in the one person of Christ are inseparably united, and yet remain distinct, so that the divine nature retains its attributes, being uncreated, infinite, and omnipresent, and the human nature continues finite and circumscribed.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Gallican Confession, 496.

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⁵³⁾

여기에 대해 일치신경 또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사람의 인성이 양성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양성이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터란들도 신성과 인성이 서로 본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hypostatic union’의 교리에 대해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⁵⁴⁾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 들어난 위격적 연합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성부와 성자가 영원 전에 구속언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오실 것을 언약하셨다. 이때 하나님 자신이 취할 그 후손의 모습이 바로 위격적 연합을 통한 성육신이었던 것이다. 위격적 연합의 성육신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제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는 속성교통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속자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목자가 되는 희생의 제물의 조건이었던 것이다.⁵⁵⁾

2. 속성교통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마지못한 복종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헌신에 따른 순종의 자세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창조세계에 대한 질서에 스스로 순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자신이 제정한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준행하신다.

5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Belgic Confession (1561), 404.

54) I. ... the human nature in Christ are personally united, and so completely that there are not two Christs—one the Son of God, the other the Son of man—but that one and the same is Son of God and Son of Man (Luke i. 35; Rom.ix.5). V. ... And inasmuch as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are personally united, that is, so as to constitute one ὑποστάμενον, we believe, teach, and confess that this hypostatic union is not such a conjunction or combination as that thereby neither nature had any thing personally—hat is, on account of the personal union—ommon with the other, such as the combination that takes place when two boards are glued together, where neither confers any thing on the other nor receives any thing from the other.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Formula of Concord, 148-149.

55) 루터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고통당했으며, 이것이 위격적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격적 연합에 대한 루터란들의 생각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위격적 연합과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성만찬의 교리에서 크게 갈라지는 모습을 하게 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Formula of Concord, 151-155.

‘The Second tic Confession(1566)’은 제12장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차이와, 옳고, 그름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형태의 율법을 완성시켰으며, 그림자를 실체로 대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⁶⁾ 이런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속성교통을 통한 위격적 연합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는 죄 없는 자를 통한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⁵⁷⁾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출발점을 마태복음 3장 13절에 등장하는 세례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세례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상사역이 죄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자신이 아담의 대표성이 되어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아담의 죄가 그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⁵⁸⁾ 그리스도 자신의 지상사역은 두 번째 아담의 역사가 이 땅위에 첫 번째 아담처럼 동일하게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을 통한 지상사역은 첫 번째 아담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야기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결론인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⁵⁹⁾

3. 속성교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

1)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에 드러난 고난의 의미

아담의 죄가 인류를 향한 죄의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의 고난과 십자

56)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Second tic Confession, 405.

57) that is, assumed a perfect man, soul and body and mind (spirit), and all that belongs to man, without sin, not of the seed of man, nor in a man, but forming for himself flesh into one holy unity,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wo Creeds of Epiphanius(A.D.374), 36.

58)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죄에 대해 아담의 죄가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두에게 전가되며 그 죄는 간접적인 전가가 아니라 죄책과 오염을 담고 있는 직접적인 전거임을 말하고 있다. “They being the root of all mankind, the guilt of this sin was imputed, and the same death in sin and corrupted nature conveyed to all their posterity descending from them by ordinary generatio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1647), 615.

59) Trent(1563)는 아담의 죄가 도덕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의한 결과임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ent(1563)는 육체로만의 죄의 전가를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85.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야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16.

가의 사건은 인류를 향한 대속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⁶⁰⁾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있어서 위격적 연합을 이룬 속성교통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통한 속성교통은 인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신성이 그대로 함께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한 제사의 제물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Heidelberg Catechism은 제37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그것은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가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38문은 밝히기를 “그 자신은 무죄하였으나 친히 이 땅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시다.”라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⁶¹⁾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을 통한 고통과 고난의 사역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2)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을 통해 이루어낸 십자가의 무름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통한 속성교통의 결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완전히 이룬 십자가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십자가 사건을 그의 ‘*Institutes*(1536)’초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아버지와 화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⁶²⁾ 십자가 사건이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애매히 처형한 불행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성교통을 통한 십자가 사건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⁶³⁾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무름이라는 공로를 믿음으로 말

60) The Heidelberg Catechism, Question 7을 통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야기되었으며, 우리의 본성이 이런 아담의 죄의 전가 속에 우리가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짐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1563), 309-310.

6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1563), 319-320.

62) 문병호, 『라틴어직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123.

- Calvin은 *Institutes*(1536) 초판을 통해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덩어리와 같이 되었으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자신의 자비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없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문병호, 『라틴어직역 기독교강요』, 197-198.

63) 십자가는 ‘*Satisfactio*’를 함께 이루어낸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데 있었다. 문병호,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트렌트 회의는 여기에 덧붙여 ‘성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임을 강조하게 된다.⁶⁴⁾ 따라서 미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것으로 여기며, 미사를 희생의 번제요, 속죄소의 하나인 공로로 계승시키게 된다.⁶⁵⁾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 이룬 십자가 사건은 아담의 원죄에 대한 무름의 완전함을 이루었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완전함을 이룬 십자가의 무름을 또 다른 대속의 성례신학으로 무너뜨려버렸던 것이다.⁶⁶⁾ 여기에 대해 ‘Heidelberg Catechism(A.D.1563)’은 제80문을 통해 로마교회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 우상숭배적인 행위’임을 말하게 된다.⁶⁷⁾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해 이룬 십자가의 무름에 대한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알미니안은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무름에 대한 공로를 구원의 절대적 위치에 두지 않고, 인간과의 협력적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⁶⁸⁾

트렌트 공회는 미사를 예배가 아니라 제사로 보고 있다.⁶⁹⁾ 뿐만 아니라 트렌트는 미사를 하나의 공로의 계승으로 보고 있다.⁷⁰⁾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속성교통을 통해 이룬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인간의 원죄를 회복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성경교리정해』, 153-154.

64) I also profess that there are truly and properly seven sacraments of the new law, instituted by Jesus Christ our Lord, and necessary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though not all for every one, to wit: baptism, confirmatio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Professio Fidei Tridentine*(1564), IV, 207.

65)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Professio Fidei Tridentine*, 209.

66) Calvin은 *Institutes*(1536) 초판을 통해(문병호, 『라틴어지역 기독교강요』, p.295) 성례의 성격에 대해 말하기를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The Heidelberg Catechism은 제65문을 통해 말하기를 “성례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으켜진 그 믿음을 성례의 실행을 통해 확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1647)은 Ques.91의 문답을 통해 성례가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통해 성례는 구원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함을 말하고 있으며,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례로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례는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이러한 성례를 이른바 ‘칠 성례’로 만들어 사제의 축성을 이루어내게 된다.

67) (Question 80)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Lord's Supper and the Popish Mass? (Answer) The Lord's Supper testifies to us that we have full forgiveness of all our sins by the one sacrifice of Jesus Christ, which he himself has once accomplished on the cross; ... And thus the Mass at bottom is nothing else than a denial of the one sacrifice and passion of Jesus Christ[and an accursed idolatry].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 335-336.

68) ‘the relation of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특히 알미니안은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의 무름에 대한 전적인 공로에서 사람에게 대한 공로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논쟁을 통해 돌트신경이 생겨나게 된다. 이 논쟁은 예정론으로 시작하여 칼빈주의의 5대 교리로 비화된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rminian Controversy*(1604-1619), 509-511.

69) 미사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려 드러졌던 분이 이제는 피 없이 드러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179.

7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Profession of The Tridentine Faith*, 208.

통해 단번에 드러졌고, 이루어진 십자가의 번제물은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을 통해 드러졌기에 완전한 제물이었으며, 완전한 제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원죄의 해결을 위해 드러질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다.

4. 위격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지옥강하 그리고 부활

위격적 연합이라는 신성과 인성의 속성교통을 통해 이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성이 인성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고 감당하였던 것처럼, 인성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다. 속성의 교통을 이룬 그리스도의 장사는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약속이 되었다.⁷¹⁾ 특히 ‘Symbola Ecumenica’는 사도신경 ‘(a) Received Form’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따른 지옥강하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옥강하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강력한 고통을 말하며, 세 번째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실제 자기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⁷²⁾ 그리고 Athanasian Creed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실적인 죽음이었음을 말하고 있다.⁷³⁾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위격적 연합이라는 속성의 교통을 통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⁷⁴⁾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구원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한다. ‘Heidelberg Catechism’은 위격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룬 의에 참여하게 하며,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게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7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1619), Second Head of Doctrine, 586.

72)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Symbola Ecumenica I. The Apostles' Creed. (a) Received Form, 46.

73) 지옥강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The Athanasian Creed, 69

74)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 Ques, 40, 320.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⁷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낸 부활은 영육의 부활을 이루는 가운데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사망을 완전히 거두어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V. 위격적 연합을 통해 이룬 그리스도의 승귀

1. 위격적 연합을 통한 승귀의 사실과 그에 따른 의미

그리스도의 승귀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의 계속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승귀는 영혼으로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취한 성육신의 상태 그대로 계신다. 이런 그리스도의 승귀는 인성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의 신성과 관련해서는 성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고난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한다.⁷⁶⁾ 이렇게 위격적 연합의 모습으로 승천한 그리스도의 승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함을 주고 있음을 Heidelberg Catechism은 말하고 있다. 그 첫 번째의 유익은 아버지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끝 날까지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통한 승귀와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존재방식에 대해 루터란은 그리스도가 위격적 연합의 승귀를 통해 이룬,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그들은 ‘이 땅에서의 편재’로 해석하고 있다.⁷⁸⁾ 다시 말하

75)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 321-322.

- Heidelberg Catechism은 57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 이룬 몸의 부활은 우리의 몸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자신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he Heidelberg Catechism, 325-326.

76) (Question 47) Is not, then, Christ with us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as he has promised? (Answer) Christ is true Man and true God: according to his human nature, he is now not upon earth; but according to his Godhead, majesty, grace, and Spirit, he is at no time absent from us.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 322.

77)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Heidelberg Catechism, Question 49, 323.

78) Secondly: that the right hand of God is every where, and that Christ, in respect of his humanity, is truly and in very deed seated thereat, and therefore as present governs, and has in his hand and under his feet, as the Scripture saith (Eph. i. 22),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Formula of Concord, 139.

면 보좌의 우편은 이 땅에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 모든 곳에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런바 루터란의 성만찬 교리의 ‘공재설’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다. 특히 1530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성만찬에 관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 만찬에 육체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⁷⁹⁾ 뿐만 아니라 로마교회는 ‘화채설’을 통해,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의 축성에 의해 떡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잔속에 함께 있고, 신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귀는 그리스도가 위격적 연합으로 하나님 우편에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늘에 계시는 것을 말한다.

2.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세 수단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포함한 ‘성례’가 있다. 갈리칸 신앙고백서는 성찬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제공받아 신앙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⁸¹⁾ 한 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⁸²⁾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계속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자기백성을 영원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⁸³⁾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79)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Augsburg Confession(1530), 241.
- Art. X.—Of the Lord's Supper.

Of the Supper of the Lord they teach that the [true] body and blood of Christ are truly present [under the form of bread and wine], and are [there] communicated to those that eat in the Lord's Supper [and receive]. 실제적이고, 실제적 임재를 말하고 있다.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Augsburg Confession(1530), 13.

8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The Profession of Tridentine Faith(1564), 99.

8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380.

82) 문병호,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성경교리정해』, 165.

8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1619), Second Head of Doctrine, 589.

VI. 결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을 통해 이 땅에 친히 임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속성교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각종 신경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아 가는데 있어서 매우 귀한 자료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바른 규범들을 세워가도록 인도하는 책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그리고 ‘칼케톤신경’과 ‘아다나시우스신경’은 대표적인 에큐메니칼신경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신경들 속에는 삼위일체의 교리와 기독교론 그리고 주기도문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요리문답이 표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마교회의 ‘트렌트 공의회’와 루터란의 ‘일치신경’ 그리고 ‘갈리칸 신앙고백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은 자신들의 신앙의 노선을 신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신경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경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어떤 신경도 기독교론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신경도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말하는 속성교통을 논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루터란의 경우를 한 예로 들어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만찬 교리에 해당하는 공재설을 적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 이런 승천을 이 땅에서의 편재로 계시는 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리스도가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 상태에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신경들은 비하에 대해 말하기를 “비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위격적 연합을 통해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비하이며, 위격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신성이 그대로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하는 그리스도께서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을 이루시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것부터 시작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지내시기까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경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은 그

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해서 무한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만약,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이 위격적 연합을 이룰 때, 두 본성이 혼합을 이루었거나 어떤 한 본성 속에 다른 본성이 흡수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의 속성교통은 창세기 3장 15 절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필수였으며,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이룬 속성교통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VII. 참고 문헌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 USA: Baker Books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mpany, 1996.

_____.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 USA: Baker Books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mpany, 1996.

_____.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ume III. USA: Baker Books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mpany, 1996.

문병호. 『라틴어직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문병호.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